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1**  
FOR PEACE & PROSPERITY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Sustainable Peace, Inclusive Prosperity

June 24.(Thu) ~ 26.(Sat), 2021  
Haevichi Hotel & Resort Jeju

주요 세션  
KEY SESSIONS



# 2021년: 기후변화로 시험대에 오른 인류



## PLENARY SESSION 1 전체세션 1

###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

-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신 국제기후체제, 글래스고우 COP26의 성공전략은?

FRI JUNE 25 | 9:00 ~ 9:50 | Grand Ballroom

한국어

ENG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 좌장 /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 / 패널 /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총회·이사회 의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프랑수아 올랑드 前 프랑스 대통령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

지난 수십년 간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의미 있는 대응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에 있는 만큼,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협상은 한동안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이 체결되자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비로소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약속을 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기후변화”란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어 버렸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유명인사들이 앞다퉀 기후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미래를 경고하고 있지만 국가들은 여전히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에만 몰두할 뿐이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며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기도 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모든 인류의 관심과 역량을 차지하며 한동안 기후변화는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어쩌면 우리가 잠시 다른 곳에 집중하는 사이 더욱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여름 독일을 강타한 엄청난 폭우와 미국 서부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모두 기후변화의 산물이다. 이처럼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재난들과 별개로 이미 기후변화가 야기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들이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경고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2021년은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원년이다. 또한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결국 올해는 인류가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인 셈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기획된 이번 세션은 과거 청와대에서 녹색성장기획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주재로 파리협정의 주역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당시 치열했던 외교현장과 협상이 타결되기까지의 생생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성공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기후챔피언으로 손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한다.

*Final deal should be made at **COP26** for really **ambitious climate actions.***



**KIM Sang-Hyup**  
President of Jeju Research Institute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 Moderator 좌장 /

*Main victims of the **climate change** would be the **young people** of today. So they should be able to **make their voice** in our climate policy.*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Panel 패널 /

*Local governments can be **more flexible, ambitious, and faster** than national governments for addressing the **climate change.***



**Jay INSLEE**  
Governor of Washington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

/ Panel 패널 /

*We simply must **increase our collective efforts** to protect ourselves, our communities and our world from existential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BAN Ki-moon**  
President and Chair of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총회·이사회 의장

/ Panel 패널 /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1**  
FOR PEACE & PROSPERITY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Sustainable Peace, Inclusive Prosperity

June 24.(Thu) ~ 26.(Sat), 2021  
Haevichi Hotel & Resort Jeju



***COP26**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mark one **great stride towards completion** of the Paris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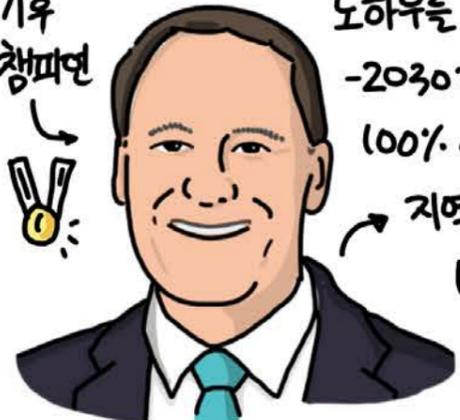


**François HOLLANDE**  
Former President of France  
프랑수아 올랑드 前 프랑스 대통령

/ Panel 패널 /



기후 챔피언



노하우를 경험하고 싶다  
-2030까지 전력분야  
100%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역의 리소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의지' ★

UN기구는 이미 1.2°를 사용  
0.3°만 남았어요

워싱턴주지사 제이 안줄리

많은 프로젝트가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



재난적 상황이 닥칠 것

100% 재생에너지 RE100 제주도

기후변화 함께 합니다

피해자 → 현재 젊은 세대



원희룡

후손을 위한 우리의 도덕적 의지

가난한 국가 지원



글래스고 COP 회의 매우 중요합니다

1 국제사회의 이행규칙 결정

2 G7국가 1,000억불 마천 개도국 지원의지

매년 1,000억씩 자금 조성 필요

3 강력한 정치적 의지

2016 파리 기후협약 이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제주연구원 김상현

3 대기업 녹색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

#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 -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신 국제기후체제, 글래스고 COP26의 성공전략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50까지 탄소배출 0으로



코로나19 2년차 + 기후변화 위기 / 국제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

위험의 증가 예고  
국제적 협력 → 행동  
파리협약 체결  
이행 강화 필요



기온상승 1.5°C 이하  
전 UN 사무총장 반기문

\* 다자기구로 돌아가자 → UN의 노력: 진행 확인

모든 국가의 동의는 원하다

\* COP21 @ 파리

에너지 생산국은 화석연료 감소는 꺼리다. 화석발전소 폐쇄 거부.

회의 전 미리 기본 틀에 동의해야 한다

1 많은 국가를 방문 ... ① 국가 → 공동의 목표 이루기

반기문 사무총장 도움

유럽국가 먼저 준비하다 → 아프리카의 참여 원하다

2 시민사회의 기여: 지자체, 노조, 젊은이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DAY 2 / JEJU FORUM 2021

# 30년 전 한소정상회담과 오늘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

## PLENARY SESSION 2 전체세션 2

###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FRI JUNE 25 | 11:00 ~ 12:10 | Grand Ballroom

[한국어](#) [ENG](#)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좌장 /	김숙 前 주 유엔대사
/ 축사 /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회고사 /	공로명 前 외무부 장관
/ 패널 /	세르게이 라드첸코 카디프대 국제관계학 교수 문정인 APLN 부의장 겸 세종연구소 이사장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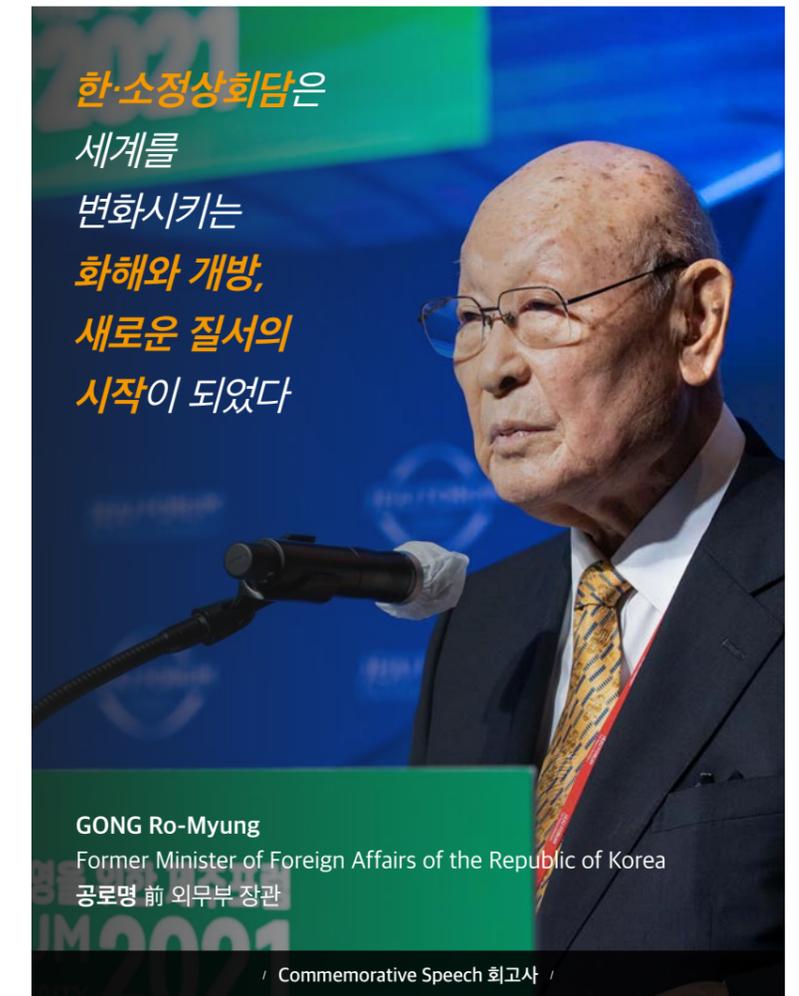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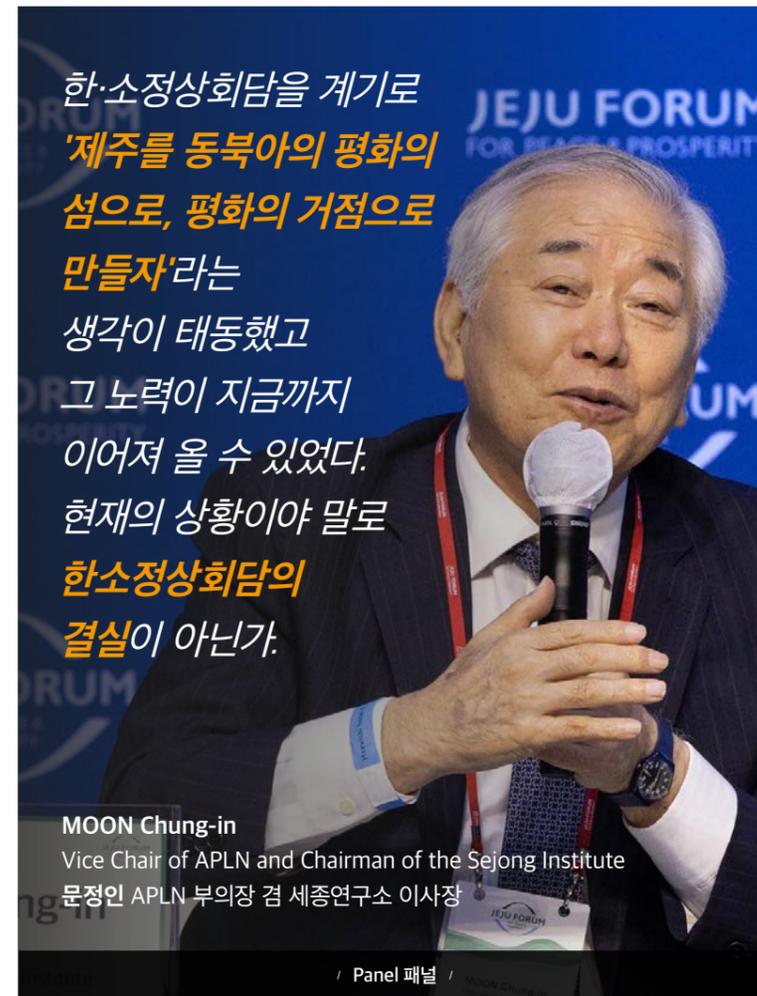
30년 전 제주에서는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다. 바로 한소정상회담이다. 1991년 4월 열린 이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내 평화 정착, 아태지역 협력 전개, 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 등을 논의했고, 이 회담으로 이뤄진 주요 결과들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한소수교 및 3차례에 걸친 한소정상회담으로 소련이 유엔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큰 결실을 이뤄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한이 과거 지속해 온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대외관계에 있어 보다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고취시켰다. 이는 한반도 내에서도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제주는 이에 발맞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의 제주 방문과 정상회담을 유치했고, 평화 염원을 담아 감귤 보내기 등 대북 외교를 수행했다. 한반도내 평화 정착을 향한 일련의 노력들로 제주는 비로소 국제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됐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한소정상회담 개최 3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된 이 세션에서는 '세계평화의 섬' 개념을 처음 제시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이바지한 인사들과 함께 한소정상회담의 의의를 살펴보고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한소정상회담으로  
소련의 정상이 최초 방문  
냉전종식의 희망제공

30년전  
초대 소련 대사 공로명  
제주에서 한소 양국 정상이 만나다!



세계 평화로 가는 여정 시작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공식선포  
16주년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시기를...



제주 한소정상회담 30주년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질서 시작  
제주 1박2일 방문요청  
정상회담 성공  
자정이 넘긴 정상 만찬



1991년 그날 새벽 4시 전화가 왔어요  
"정상회담의 의미"

노태우 대통령 소련과 수교 희망

1990 김영삼 방소시 친서 전달  
양국정상 \* 전후 4차례 회담

새로운 국제적 위상 \*  
제주 3무도  
도둑 X 거지 X 매춘 X  
위협 X 착취 X 안전

제주포럼  
대한민국 최고의 포럼

1991.6 제주국제협의회 지식인 모임 창립  
창립세미나에서 '평화의 섬' 제시  
혁명적 발상 제주의 미래

한소 정상 회담

김일성의 태도에 우려  
관계구축  
고르바초프 큰 역할  
한국을 인정!  
대화 시작

노태우 대통령 비전을 가짐  
한국-소련 간극 줄이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냉전을 넘어 평화로!

국제자유도시 선언

88올림픽은 TV로 보다



2005 대한민국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 허브로!

김대중 대통령 참석  
매년 열자!

비타민C 외교  
감귤 보내기 운동



1991.4.20 한소정상회담 30주년 회고  
1994 이봉총리 방문  
1996 한미정상 회담  
한일정상 회담  
1992.6 국제학술회의  
1999 북한에 인도적 지원  
2000 제주개발 특별법  
2005.1 평화의 섬 제주 지정

DAY 3 / JEJU FORUM 2021

# 냉전 종식 30주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방향은?



## PLENARY SESSION 3 전체세션 3

###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SAT JUNE 26 | 9:00 ~ 10:20 | Grand Ballroom

한국어

ENG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좌장 /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패널 /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명예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국가안보기록보관소 러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한반도의 냉전은 정전협정을 맺은 후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 상태를 우리는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42년의 세월 동안 날 선 갈등과 대립을 이어온 소련과 미국은 1989년 12월 3일 몰타 회담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그 이후 1991년 12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직 사임을 계기로 소련이 해체되며 공식적으로 유럽의 냉전이 종식되었다.

냉전이 어떻게 종식되었느냐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무역 및 자본 이동 확대와 개혁개방 정책 등을 계기로 서방 세계에 대한 접촉이 조금씩 늘어났다. 동시에 소련 내 각 공화국의 독립성이 커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각 공화국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갖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변

화와 흐름 속에서 몰타회담이 개최되었고, 비로소 미-소 갈등 관계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다시 말해 냉전의 종식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변수와도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로 남아있는 만큼 언제든지 다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단순히 민족 간의 이념 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 종식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미완의 과제 앞에서 유럽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냉전 종식 30주년이 되는 올해, 평화롭게 냉전을 종식시킨 유럽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Lesson for **Korean Peninsula** situation is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 vision** who can accept different ideas, who have open-mindedness, and the **building of our trust and understanding through engagement.***

KIM Sung-hwan  
Chairman of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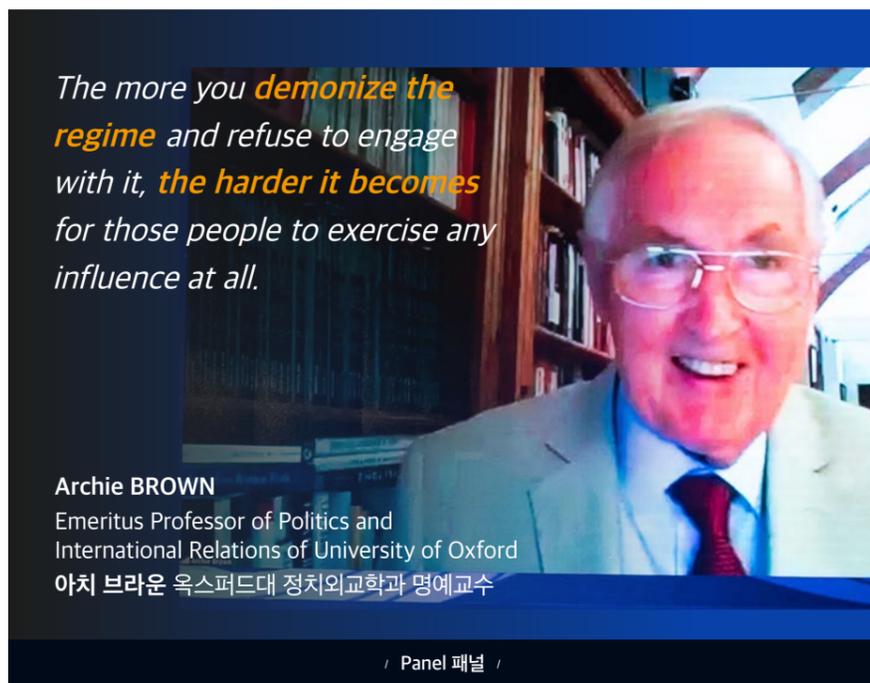
/ Moderator 좌장 /



*We need to analyze the **complex entanglements** of **agent** and **structural factors.***

HA Young-Sun  
Chairman of East Asia Institute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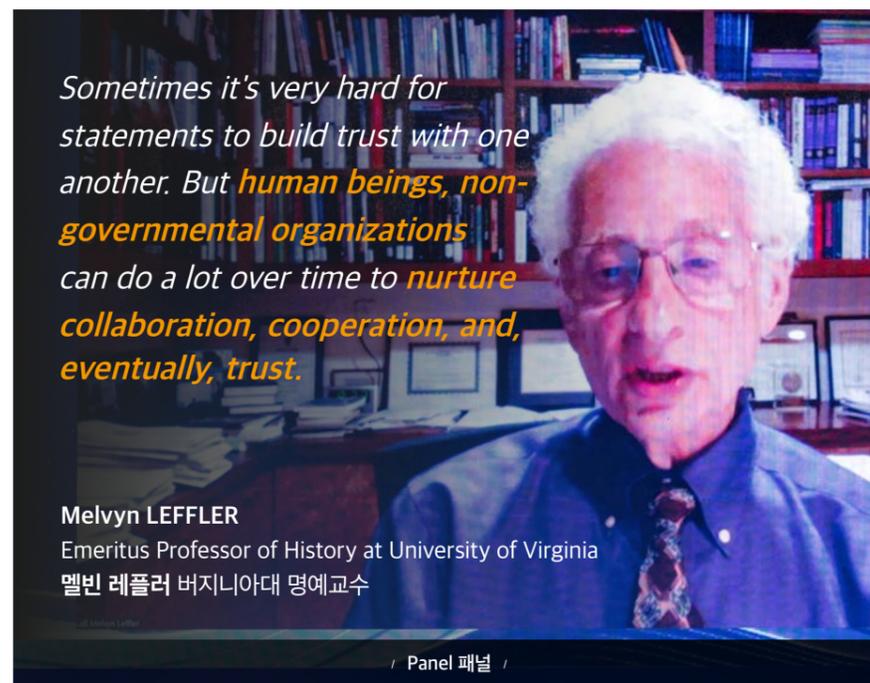
/ Panel 패널 /



*The more you **demonize the regime** and refuse to engage with it, **the harder it becomes** for those people to exercise any influence at all.*

Archie BROWN  
Emeritus Professor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University of Oxford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Panel 패널 /



*Sometimes it's very hard for statements to build trust with one another. But **human being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do a lot over time to **nurture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eventually, trust.***

Melvyn LEFFLER  
Emeritus Professor of History at University of Virginia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명예교수

/ Panel 패널 /



*We need **three elements** for ending the cold war between the two Koreas. First is **engagement**. Second is **leaders** who are willing to think differently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third is **favorable international settings.***

Svetlana SAVRANSKAYA  
Director of Russia Programs at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국가안보기록보관소 러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 Panel 패널 /



#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1. 포용의 중요성 : 동방정책
2. 냉전종식: 미국-소련 준비동등 균형 상황
3. 고르바초프: 정치변화 희망
4. 마가렛 데처의 큰 역할
5. 레이건 재임 + (선택) \* 고르바초프가 핵심역할
6. 동유럽 국가들 독립(1989~)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김성환



**신뢰의 중요성**: 미-소 지도자 서로를 신뢰하다  
공감

대외 정책 변화

남북한 대화  
· 리더의 생각  
· 국제적 정세



‘동유럽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고르바초프의 진심  
유럽공동의 집

‘계속 이렇게 살수는 없다’  
고르바초프 전세계와 대화 희망  
· 핵전쟁 종식원함  
· 자문단이 영향을 하자, 미침  
· 해외 지도자들로 만남  
⇒ 핵무기 포기, 함께 협력

비슷한 생각을 가진 리더의 대화가 중요

희망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개방적 태도: 새로운 생각  
레이건: ‘군비강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큰노력!  
순편지를 보낼 인간적  
소련지도자와 함께 평화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까?  
러시아어 러시아문학도 공부  
관계 → 신뢰  
핵시대의 종식을 원하다



공산주의: 정치경제적 패배  
했다는 생각 만연  
우월성 사라짐  
인권: 개인의 자유 보장 압력, 인식 확산  
평화운동: 전세계인이 핵무기의 위험 인식

한반도는 좀더 복잡한 방식이 필요

한국전쟁

71주년  
냉전의 시작  
왜 우리는 냉전종식을 못하나

북한의 성장전략

· 국제관계 개선  
· 주체적 내부힘 (해)  
· 통일역량 강화 (화해)



이근 계속 주둔 희망

# 화해·평화·치유의 롤모델, 제주



## CLOSING SESSION 폐막세션

### 화해·평화·치유의 보편모델: 제주에서 세계로

SAT JUNE 26 | 15:20 ~ 16:40 | Grand Ballroom

한국어 ENG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 좌장/기조연설 /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 / 축사 / 자크 아탈리 유럽부흥개발은행 초대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 발제 / 베르너 페니히 前 베를린자유대 교수
- / 패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에게 2021년은 뜻깊은 해이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2021년 2월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개정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도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차원에서 배·보상을 진행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에게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제주4·3은 제주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 3만 명의 무고한 도민들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의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그 비극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주4·3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은폐되었다. 하지만 영원한 침묵은 존재하지 않았고 진실규명을 향한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확정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수반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며,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마침내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과거사 극복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

이처럼 제주가 비극의 역사를 한 단계씩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평화를 염원했던 도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든 주체들은 누구였을까?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과거사 극복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 제16회 제주포럼 폐막세션 <화해·평화·치유의 보편모델: 제주에서 세계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세션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자유대 교수가 참여하여 제주4·3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깊이 있게 논한다. 제주4·3 연구의 선구자인 박명림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각 주체들이 생각하는 4·3문제 극복의 핵심내용을 들어보자.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과거사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세계 보편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그 시작을 알리면서 제16회 제주포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4·3이 갖는 의의와  
가치가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JEON Hae-cheol  
Minister of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



국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Panel 패널 /



제주 4·3은 물론 탄압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단 반대 운동,  
즉 통일 운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통일  
시대가 도래한다면,  
제주 4·3은 더욱 높이 평가  
될 것 입니다.

YANG Jo-hoon  
Chairperson of Jeju 4·3 Peace Foundation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Panel 패널 /



세계폭력의  
희생자였던  
제주  
이제 세계의  
화해와 평화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

PARK Myung Lim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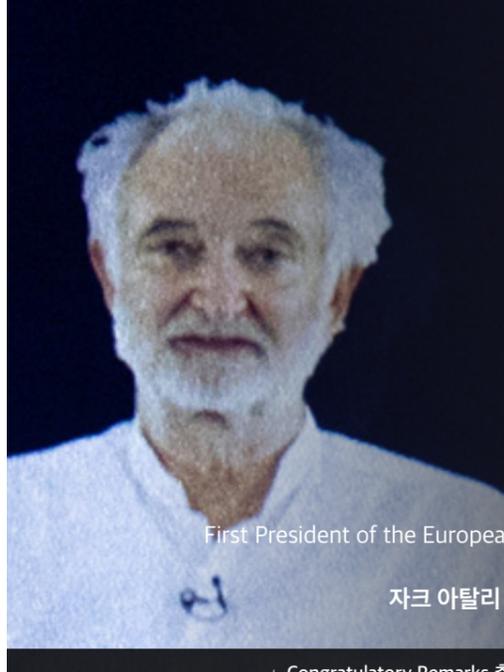
/ Moderator/Keynote Speech 좌장/기조연설 /



화해,  
미룰 수는  
있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Werner PFENNIG  
Former Professor of Freie Universit at Berlin  
베르너 페니히 前 베를린자유대 교수

/ Speaker 발제 /



평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Jacques ATTALI  
First President of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자크 아탈리 유럽부흥개발은행 초대 대표

/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



# [폐막세션] 화해·평화·치유의 보편모델 제주에서 세계로

**좌장**

전세계 마스크 300만장 반도체 기술 표준 기부

- 한국의 위상
- 제주 세계평화도시 협정

희생 4.3에서 → UN으로

내면 평화 → 사회평화 세계평화

세계연전 → 세계냉전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연세대학교 교수 박명림

중심의 냉전 → 주변 연전

Aporia 어쩔 수 없는 상태

정의 + 화해

상생·공존

제주: 상처받은 세계의 치유자

4.3 해결과정 > 제주모델 = 아래로부터의 변화

세상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인지, 사회적 발전 민주주의, 도전, 노력 공존을 추구해야...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초대대표 자크 아탈리

제주 4.3은 뼈아픈 비극 → 극복과 회복의 모델 : 고통의 신간 감내 & 헌신

4.3이 가지는 의의 가치가 전세계와 공유되기를... 행정안전부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민간인 학살은 전쟁 중에도 용인될수 없다

14.3은 제주의 정체성, 가치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모든 관계자가 함께 참여

20년이 넘는 노력 보편적 화해 모델

인간존중의 교환

사촌 7살, 5살 희생

진정한 통합의 정신 4.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3의 시작은 38선에 있다

4.3의 의미

분단과 냉전이 묻고온 비극

1. 자치·자유
2. 정의
3. 통일
4. 평화·인권
5. 화해·상생
6. 치유·통합

등터진 새우개리 싸움

제주는 4.3 치유를 통해 하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4.3은 운명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독일의 화해 사례

2+4 조약 동독 연방공화국 합류

→ 화해 필요

• 항공 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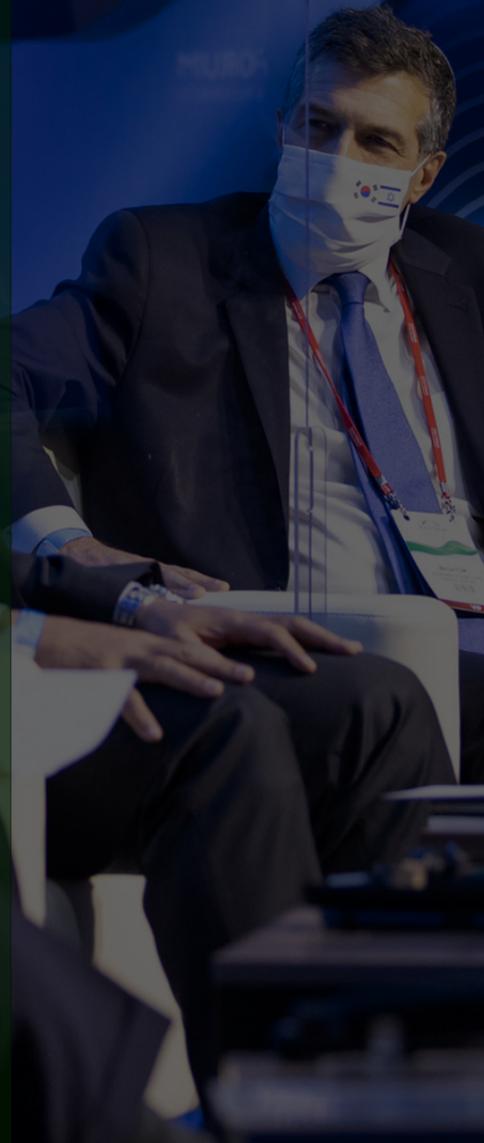
↳ 박물관으로

시간은 상대적 누구에게는 길고...

화해를 미룰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

전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베르너 페니히

# 평화롭고 안전한 중동을 향하여



## AMBASSADORS' ROUNDTABLE 1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1

### 중동의 평화조약과 한반도에의 함의

FRI JUNE 25 | 15:20 ~ 16:40 | Grand Ballroom

한국어 ENG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 좌장 / 김중용 前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
- / 패널 /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يمي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 하짐 파미 주한 이집트대사
-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2020년 9월 미국 백악관 현관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UAE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외무장관,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는 모습에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협정 이후 모로코와 수단도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 협정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평화 조약은 각국 국민의 평화 염원은 물론,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가 서명한 캠프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은 이집트의 재정 위기와 이스라엘의 남부 접경지역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협정으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섰다.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경제 지원을 바탕으로 후세인 1세 요르단 국왕을 설득해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평화 협상을 체결하도록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 협정을 통해 최대 국경지역인 요르단강 동안지역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 협정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이란', '국내반정부세력', 그리고 '저유가'란 3중 위기에 처해있던 아랍 국가들을 설득해낸 것으로, 역시 미국의 중재와 아랍 국가들의 실리 추구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분단 국가로서 평화에 대한 염원이 깊고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중동의 평화 조약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세션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한대사들과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서 중동의 평화조약을 살펴본다.





*I hope that the momentum of the peace brought by the historical Abraham Accords keeps on consolidating and enhancing to settle the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peace** in the Middle East so that **young generations** there may pursue their **dreams** i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uture.*

**KIM Jongyong**  
Former Ambassador of Korea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  
김종용 前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

/ Moderator 좌장 /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between the UAE and Israel could be a **good example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efforts toward **peace, co-existing, and common prosperity** with its northern neighbor.*

**Abdulla Saif AL NUAIMI**  
Ambassador of UAE to the Republic of Korea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 Panel 패널 /



*States are very effective in laying the grounds but that's not the end of it. That's **the beginning of a hard process** that needs to be worked out.*

**Hazem FAHMY**  
Ambassador of Egypt to the Republic of Korea  
하짐 파미 주한 이집트대사

/ Panel 패널 /



*Peace requires a **forward looking approach**. In our region of deep tradition, we need to believe in **history** but not become its **victim**.*

**Akiva TOR**  
Ambassador of Israel to the Republic of Korea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 Panel 패널 /





# 중동의 평화조약과 한반도에의 함의

중동 평화 가원석

**모더레이터** → **중동** 동-서 교차점  
 ↑ 고난·역경  
 ↓ 평화구축 노력 계속  
 다시 한번 평화를 바라다  
 이스라엘 vs. 하마스

상상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있다

● 한국은 중동과 특별한 관계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김종용

**2020 아브라함 협정** → 한국에도 유의미

남한 vs. 북한은

문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다

시간 문제

이번 포럼이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외교 과학 무역 일자리 창출 건설적 대화

공동 번영·평화

이제 포럼이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번영·안정 중동의 미래

결정의 배경: UAE는 관용을 구축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위한 중동을 만들자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록 굳건해진다

이집트는 평화협정을 환영합니다

신뢰 확보, 지역 안정

포괄적 평화협정 필요 → 다양한 활동

한국과 중동 적극 협력하겠다

초국가적 연변 → 협력

전세계 9위 경제대국

6위의 군사력

한국의 평화를 바란다

주한 이집트대사 하킴 파미

협정 이후 협력관계 전망?

사회+정부 전방위적 협력 왜 지금?

유토피아적 기대 위험하다

평화협정 가능한 배경

관계 정상화 노력

전략적 목적: 시아파

1800km 이스라엘-이란 : 핵무기 확보 안됨

통과 선박들 위협 혼자 선수 없음

용기있는 지도부 필요

협력

미국의 역할 아랍평화추진

백안관 잔디에서 서명

협정

평화 확보

정치적 어려움 극복

\*아브라함 협정!

한국에 큰 기회

한국의 그린 기술

중동의 자원 + 한국의 기술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이집트대사 하킴 파미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키바 토르

# 외교: 국제사회 위기 극복의 열쇠



## AMBASSADORS' ROUNDTABLE 2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2

###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

FRI JUNE 25 | 17:10 ~ 18:30 | Crystal Hall A

한국어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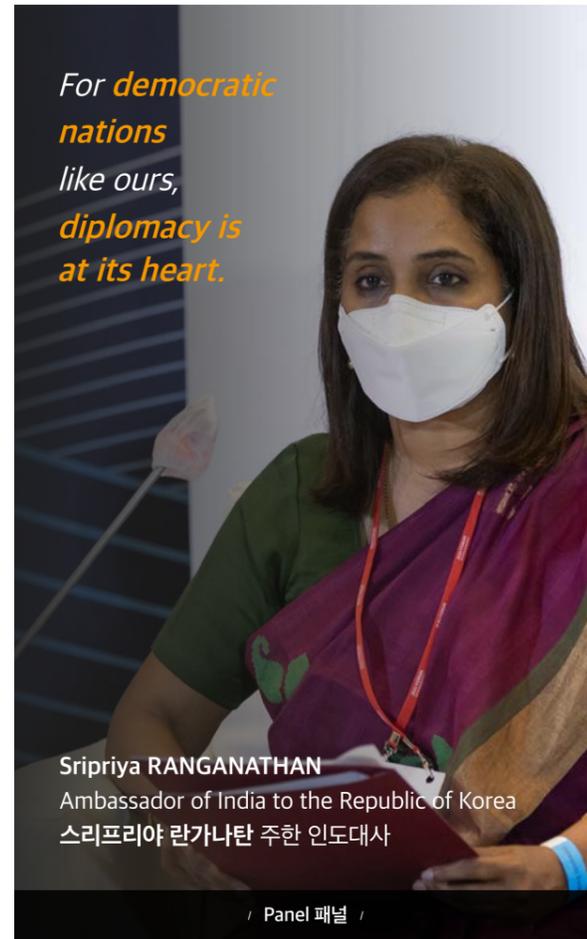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 좌장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 패널 /
  -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
  -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 코이치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

외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치열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회의와 협상은 외교를 수행하는 방식일 뿐 외교의 본질은 아니다. 외교의 진정한 가치는 힘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중국에는 외교를 통해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며 평화를 되찾곤 하였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다자외교라는 이름 하에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모여 앉아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 민주주의의 퇴보, 기후변화, 국가 간 갈등,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기들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위기(multiple crises)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복합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 전세계적인 위협이기에 특정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등지에서 자국중심주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다자협력의 정신이 위협을 받고 그 과정에서 외교의 역할이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냉전시절 미국과 중국이 핑퐁외교를 통해 관계개선의 물꼬를 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금 외교의 힘이 매우 절실하다.

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요국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복합위기에 맞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초청된 인도,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일본은 대외정책에 있어 일방주의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안들에 대응해 온 만큼 이번 회의의 주제를 논의하기에 매우 적합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EU와 ASEAN이라는 지역협력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내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또한 인도, 일본, 호주의 경우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물론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의 다자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좌장은 과거에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 나이지리아 대사, 외교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재직 중인 노규덕 본부장으로, 그간 외교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한대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



좌장  
단성이 쉽지는 않다  
어려운 주제  
전세계적 위기 상황  
공통의 위협요소 기회찾기  
⇒ 협력 필요  
외교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외교관계가 중요  
(프) 4개의 원칙

- 주권·자율성
- 다자주의 회복
- EU 주권회복
- 민주주의 수호



AI : 기회이자 위험  
국무장관 SNS로  
성차별 발언!  
주한 프랑스대사  
필립 르포르

우선순위?  
· 기후 변화  
더 높은 목표  
· 투명한 정책  
구체적 " "   
DTS : 가난한 국가를  
지원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은 우리를 변화하게 만든다.  
국가도 병하고 있다 ⇒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중 노력  
평화 + 번영 + 생태 ⇒ 외교적 노력  
외교의 역할 안보. 재난대처  
↳ 한국과 계속적 협력기대  
연결 + 투명 + 개방 + 책임  
백신공급  
인도와 한국은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주한 인도대사  
스리프리아 랑가사탄

공조 + 신뢰  
백신 접근성 향상  
노력중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권력은  
가지고 있다

· 2021년 호주-한국 관계 중요한 해  
· 미-중 경쟁 심화 : 전세계에 영향  
인도-태평양의 평화는  
위해 노력  
무역보호주의 지양  
파트너십 구축



주한 호주대사  
캐서린 레이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싱가포르의 제주도 절반 크기

미-중 관계 적대적 관계 유지 중  
신뢰 구축 필요 → 미국의 백신 권력!  
중국은 합당한 책임감  
평화·번영의  
방법을 찾아야...  
대화 필요



주한 싱가포르대사  
에릭테오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일본과 한국  
2050까지  
탄소중립 선언  
녹색 펀드 조성 ⇒ NDC 업그레이드 필요  
FRP : 2016 시작  
아시아-아프리카 연계

에너지 분야  
이산화탄소  
E·S·G  
환경 사회 정부  
실행 가능한 리더십  
SDG  
지속가능 개발 목표



주한 일본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 석탄  
한국: 원자력  
제주: 적합한 장소  
핀버튼  
많이 붙수 있거든



DAY 1 / JEJU FORUM 2021

# 불평등 시대, 청년에게 희망은 있는가?

## YOUTH SESSION 1 청년세션 1

###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THU JUNE 24 | 09:00 ~ 10:20 | Grand Ballroom

한국어/ENG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대담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비지트 배너지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청년 좌장 /	김홍진 제주연구원 연구원
청년 패널 /	김수빈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김지현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정공진 제주한라대학교 총학생회장 배스 잭 우리들의미래 청년위원 발라르세 카린 제주COP28 유치위원회 연구원

비영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전문가들은 '기생충'이 흥행한 이유에 대해 불평등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극을 절묘하게 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이 명백하다.

계층상승 이동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산불평등(33%)'으로 부모의 재력이 곧 자녀의 성공을 가름한다는 인식이 넓게 통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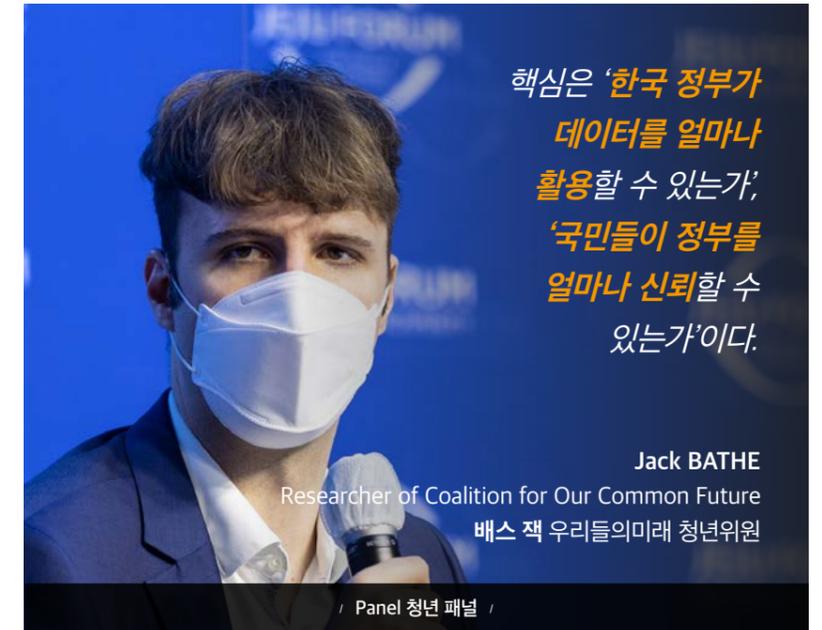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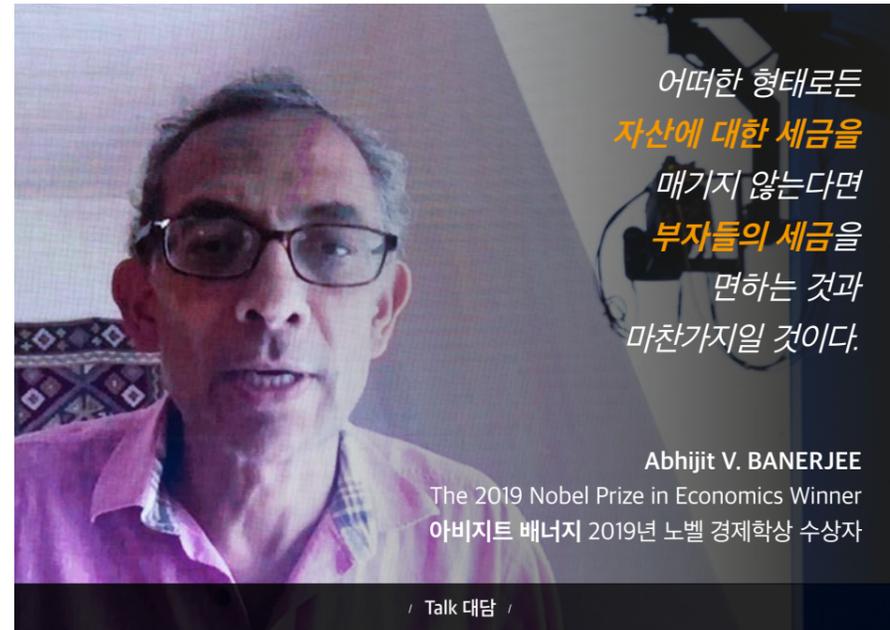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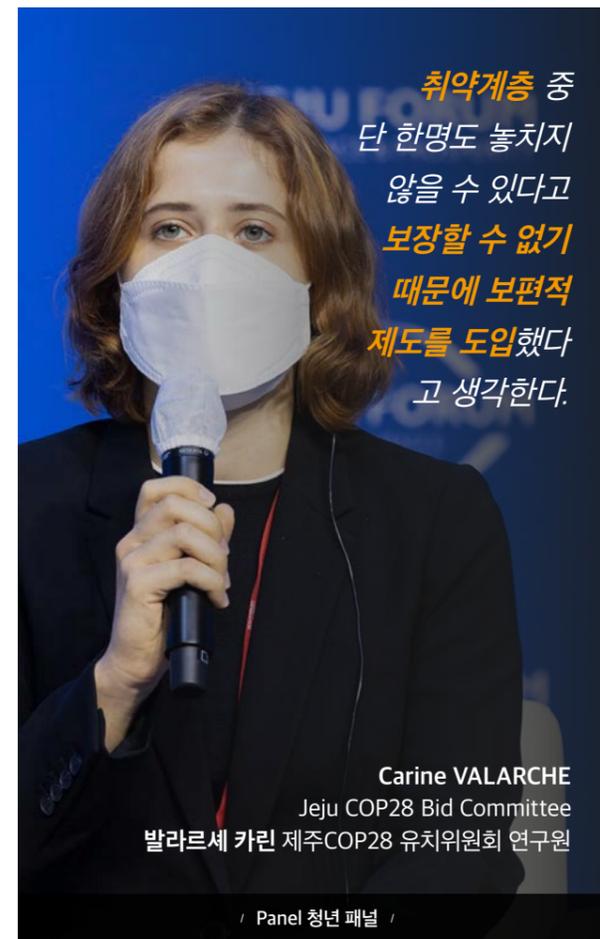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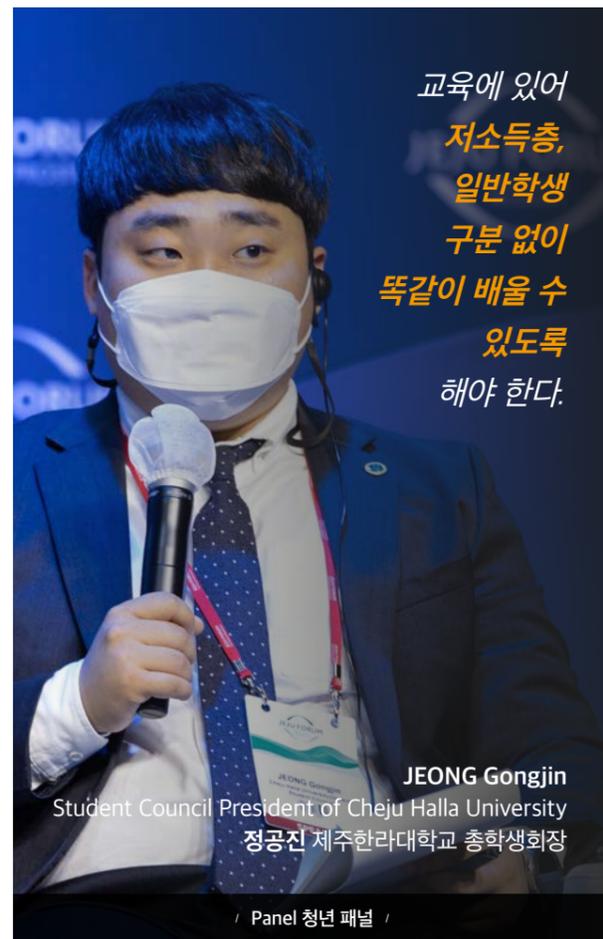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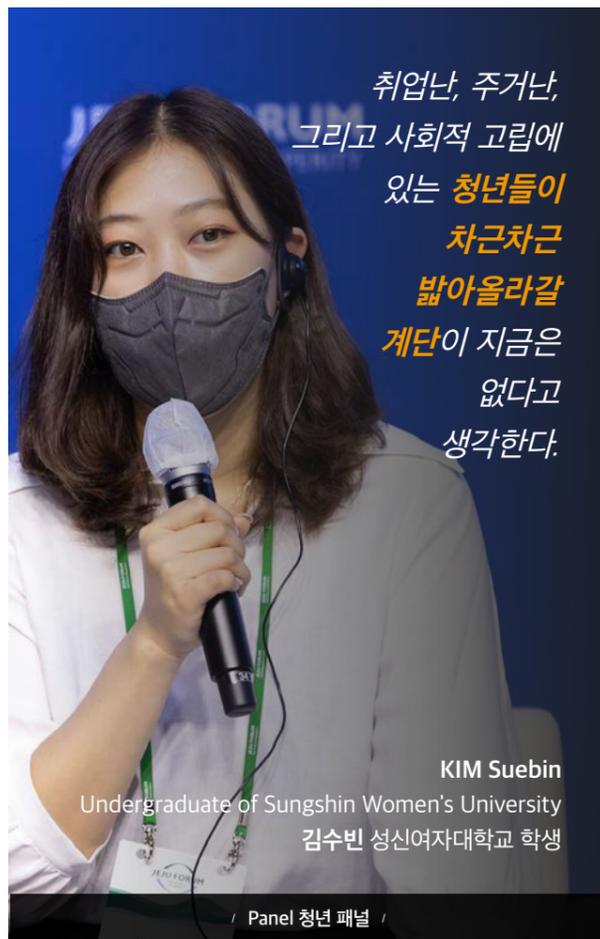
빈부 격차와 부의 대물림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의 깊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서울 청년의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 절반 이상은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고, 4050세대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저자 아비지트 배너지 MIT 교수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선별지원, 부유세 등 다양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해 듣고, 두 전문가의 대담에 대해 청년들의 토론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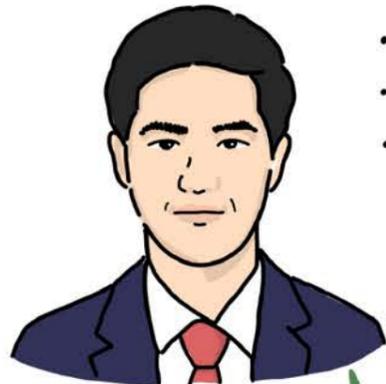




[ 청년세션 1 ]

#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 Inequality and Inclusive Prosperity



김홍진 연구원  
제주연구원

- 2000년 인터넷산업박람회
- 제조업 > IT기업 >
- 성장에 따른 견동
- oX) 운산 (자동차 x)
- ↳ 대책 필요
- 재교육
- 소득보장

노력은 해도  
기회부족. 보장부족  
청년세대는 역동적!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청년이 느끼는 불평등  
• 첫직장 • 자산격차  
• 출발부터 좌절

• 다양한 지원  
• 학생 스스로  
능력은 카운트  
있게 지원!



아비예온 배너지 교수  
201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data System → 대상자를 잘 챙길수 있다

한국의 청년은  
복을 받았다!  
세계를 바꿀수 있는 기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까?  
고민해주세요.

Head Start  
불평등 극복  
교육프로그램



↳ 장기적, 지속적 효과 : 문화자본의 중요성  
독서·토론

데이터 + 개념적 프레임 워크에 기반한 연구  
어떻게 변화에 대응한 것인가? (논쟁 X)  
↳ 존엄성 → 인차리 → 니즈 - 보편적 기본소득  
전환은 쉽지 X

• 많은나라 부유세는 집은 포함하지 X (부유세?)  
• 부동산 가치 증가분의 일부는 정부가 가져가면?  
↳ 가격이 하락하면 ⊖ 세금도 가능 (보편적이라는  
뜻은 벗어나 대상선정  
\* 선별) →

- Q 재취업은 어떻게 국가가 도와줄까?
- Q 보편적 기본소득?
- Q 부유세가 불평등을 감소시킬수 있나?
- Q 어떻게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까?
- Q 왜 청년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할까?
- Q 불평등의 재생산

기본소득보다... 삶의 질 ↑  
인차리 창출과 반전의 중요성

김지현 (성신여대3)  
• 융합, 보안 전문가 필요  
• 맞춤형 교육 필요  
• 경력단절자 지원  
• 기본소득 지원 필요

잭 베스 (영국)  
사면적인 운니들의 대개  
제도의 필요성  
data의 중요성  
중소기업 (25%) 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김수빈 (성신여대)  
• 주거안정의 문제  
•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원인은 = 반탈감?  
• 청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을 먼저 찾아라!  
→ 소득분위는 나누어서 지원 → 시스템 필요

헝경준 (제주대)  
•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 구성  
• 개개인의 의견  
반영  
• 금융교육,  
노동교육 필요해요

카린 (영국)  
정공권  
단지 돈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의  
부족으로 격차 발생  
head start 가 한 방법  
•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렵다. 연령, 자녀  
→ 차등 지급  
우리의 교육현실  
↳ 아쉬움  
사교육 보다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DAY 1 / JEJU FORUM 2021

# 아픈 역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YOUTH SESSION 2 청년세션 2

### JDC-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

THU JUNE 24 | 10:50 ~ 12:10 | Grand Ballroom

▶ 한국어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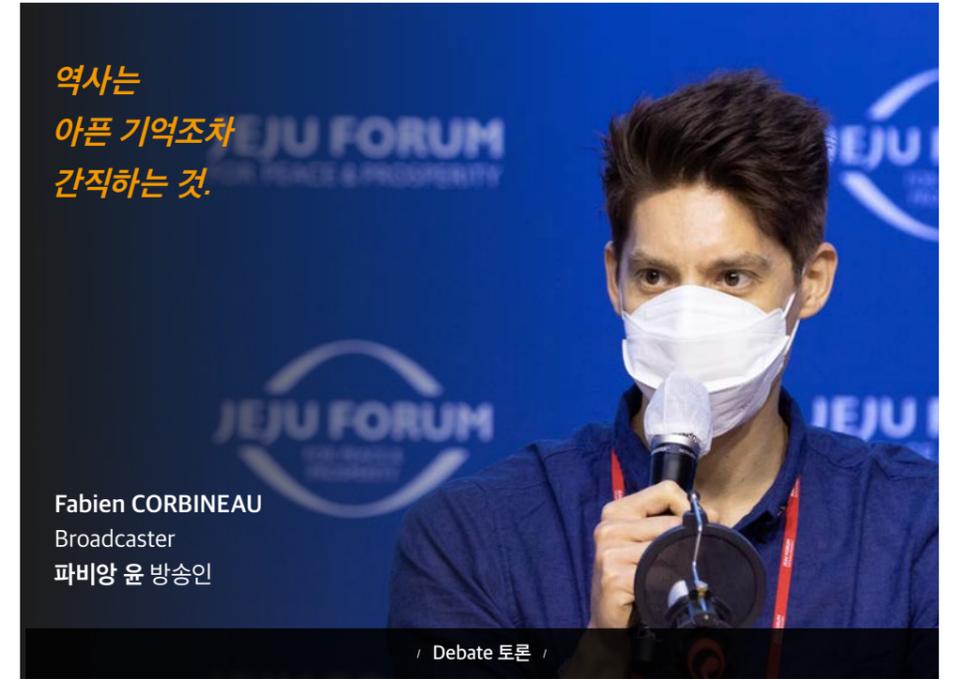
- / 축하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 환영사 /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 진행 / 오상진 블리스엔터테인먼트 방송인
- / 강연 / 최태성 별별연구소 한국사 강사
- / 토론 / 파비앙 윤 방송인  
신혜림 CBS 프로듀서  
김성현 주식회사 렛츠필름 영화감독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연구원
- / 사연소개 코너 / 요조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가수  
다니엘 린데만 JTBC스튜디오 방송인

오상진 아나운서와 최태성 강사,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평화를 실천 중인 청년들이 제주포럼에 모였다.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현세대가 끊임없이 배우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미래세대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대화의 장을 열었다.

본 세션은 제주4.3의 핵심가치와 정신에 대해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평화의 중요성과 평화 구현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4.3의 전말에 대한 최태성 강사의 역사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 패널들이 비극의 역사 또한 기억하고 배우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며, 청년 참가자들의 신청곡 공연으로 세션이 마무리 된다.

JDC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는 제주4.3의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세계평화의 섬'으로 도약하는 제주에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주제로 청년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실시간 소통을 하기 위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기획하였다.







ON AIR

JDC- 제주 4.3 평화재단이 함께하는

#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

토론 세션 제주 4.3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의 평화의 섬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찾는 4.3의 상생 정신

특강

**진행**

방송인 오상진

문대림 JDC이사장

클로빙 영리더스 포럼 첫 개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양조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4.3의 시작은 38선

공감 함께 느끼고 기억하는 역사

4.3은 세계적인 사건 함께 알리는 일에 동참

다니엘과 요조의 이벤트 코너

'?라줍서' 말해주세요

호세 멕시코 → 제주 2년전 유학 '동백서포터즈' 세계에 알리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성어송라이터 요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방송인 파비아

아픔까지 기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4.3을 알려야 할 책임감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다.

청구가 되려면 그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이급

김성현 영화감독

「수상한 이름 찾기」 71년 오라리 방화사건 영화화

홍행을 위해 진실은 왜곡하지 않기 위해 노력

폭력은 시대·모습을 달리해 반복된다

반영관 연구원 제주 4.3 평화재단

4.3 추가진상보고서 영문 번역

진실규명·명예회복

구체적 피해 실태 파악 4.3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필요

신혜림 PD

클라우드 편영 = 공감

4.3 요약정리 영상제작 4.3을 알리고 싶었어요

조회수 500만

최태성 한국사 강사

1945. 8.15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미국: 당시 한반도에 대해 무지·무관심

소련 \* 점령군 \* 미국 \*

강점기의 주요인사 제거용! → 제주의 분노

1947. 3. 1 경찰의 말에 어린이 사망 → 경찰서 항의 방문

관민총파업! 6명 사망 (우고한 시민) → 서북청년회 투입

1948. 4. 3 남로당 무장봉기 → 경찰 + 가족 사망

총선 2 오라리방화 ← 평화협상 ← 군대 파견

1948. 5. 10 백범·단독정부 반대 → 제주도민 해라산이동 [총선거부]

초토화 작전 ← 제주=반역의 섬 "낙인" ← 정부수립

해안선 5km 이상지역 통행시 총살 → 다량뒤굴 학살

1950. 6. 25 제주도민 1/10 학살

2003. 10. 31 노대통령 '사과'

기억 = 아픈 비극 반복하지 X

DAY 1 / JEJU FORUM 2021

# 102세 청년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세기를 넘어서는 세대 간의 만남!

## YOUTH SESSION 3 청년세션 3

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THU JUNE 24 | 13:30 ~ 14:50 | Grand Ballroom

[한국어](#)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 개회사 /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 / 좌장 /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 발표 /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100년은 어떨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100년 동안 변한 것이 어디 강산뿐일까?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군사정권과 민주화 과정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그 숨 가쁜 역사를 관통해 오는 동안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은 더 변했으리라. 이 100년의 역사를 몸으로 직접 겪어 온 철학자가 있다. 올해로 102세를 맞이한 대한민국 3대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 시대의 멘토로서 활발한 저술 및 방송, 강연 활동을 펼쳐오며 대한항공 비행기만 930회 이상 탔다는 김형석 교수는, 지난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930번 이상 탄 1살'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다고 한다. 세 자릿수를 읽어낼 수 없는 컴퓨터의 전산상 오류가 빚어낸 해프닝이다. 그러나 그를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젊다. 그는 100세가 되어도 매일 새롭게 배움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그의 젊음의 비결이자, 100년이 넘는 세월을 우직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삶의 지혜일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MZ 세대라고 해서 이 변화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 어제는 주식, 오늘은 비트코인을 전전하며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기는커녕 당장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기도 버거운 청년들이 어디 한둘이랴.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 시대,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절실한 시대다. 세대 간 격차와 이해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라고들 하지만 어쩌면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멘토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배우 윤여정, 유튜버 박막례에 대한 청년들의 열광이 그 반증 아닐까.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의 지혜를 나누어줄 멘토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작은 용기와 응원의 선물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02세 청년' 김형석 교수가 가진 지혜와 통찰을 제주 지역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세션을 기획하였다.





Conversation of centry: Over 100 years of time

# 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 작년 청와대에서 선물은 보내주었어요 "100세"

조선시대에는 80세가 되면 받았어요 지팡이 → 우리는 언제 '나'를 발견하게 되는가

마틴루터 킹, 안창호, 간디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삶은 남는다.

보람있는 삶 = 사명감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며 산면 그만큼 성장한다" - 아버지

오프닝 인사말

좌장

건강한 삶의 원동력 : 밝은 생각

★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



행복한 100리길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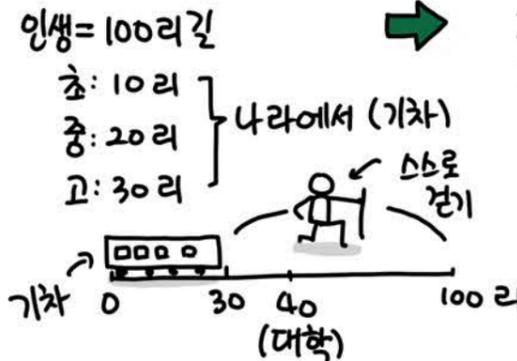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0대 초반 중학생 윤동주 : 나는 시인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

홍창의 박사 (1943~) 중학생때 자기발견  
좋은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 → 사명감  
아산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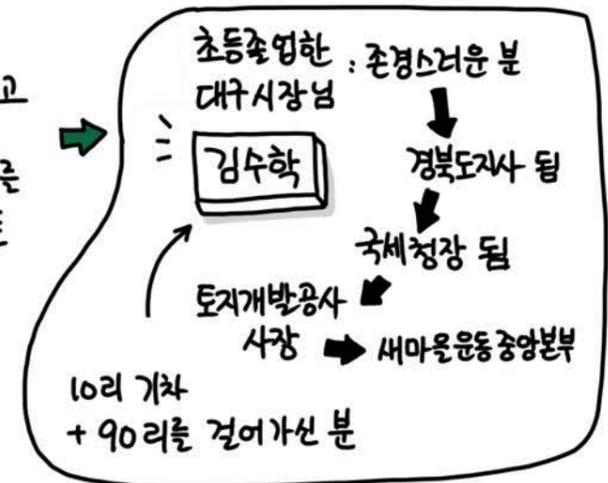
황순원 작가 : 나는 소설가로서 내 인생을 살겠다. ← 중학생 때  
그럼 나는 철학을 공부하자

무엇을 앞서기만 하면 존경+보람 있는 삶이 된다



선진국 : 대학에 많이 가지 않는다  
대학이 행복과 무관  
• 모든 사람은 한가지는 앞선다.  
→ 이것을 찾고 가꾸는 사람 → 행복  
• 내 소질을 살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 덴마크 :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 이후 지역사회에서 교육  
→ 행복지수 ↑, 범죄율 ↓



교육의 문제 학교교육 + 스스로 자신을 키우는 것 : 평생 계속  
목적없이 대학에 가는 것 = 인생 낭비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 → 훌륭한 업적을 이룸

책 쓰고 공부하니 90이 넘어도 계속 일함 (친구들은 다 저세상으로...)

항상 내가 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100세의 나  
매일 일기를 써요

나이 들어도 내가 나를 키우는 것 = 인생의 목표

# 코로나 학번이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와 희망의 메시지

## YOUTH SESSION 4 청년세션 4

### 코로나 학번: 팬데믹의 현재와 미래

THU JUNE 24 | 15:20 ~ 16:40 | Grand Ballroom

ENG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 좌장 /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홍미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 발표 / 도미닉 홍지영 고려대학교 학부생
- 나빈 모한라즈 서울대학교 학부생
- 마야 라마완 서울대학교 학부생
- 라우라 헤르윈 고려대학교 학부생
- 키아라 텍베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
- 민준홍 서울대학교 학부생
- 콜린 무투리 서울대학교 학부생
- 나야마 스킨벨트 고려대학교 학부생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를 결합한 신조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회와 격리시키면서 발생하는 불안함과 무기력함이 주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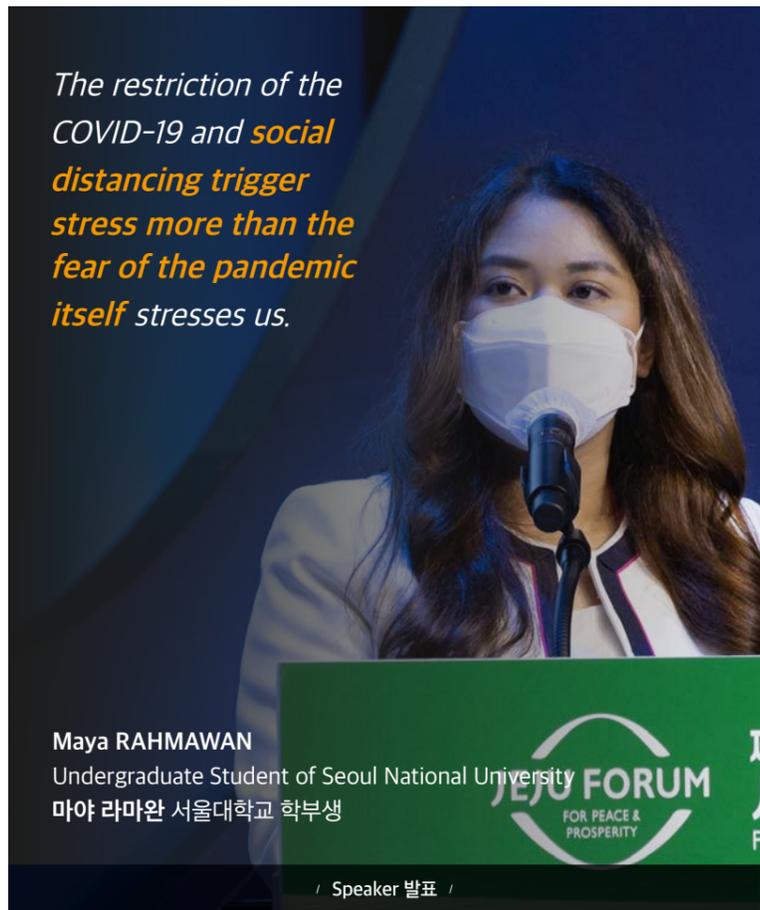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36.8%)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서는 2030 세대의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올해 전반기에 들면서 우울 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30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20대(11.1%), 30대(12.6%)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2030 청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깊은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입학한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들의 삶의 양식 뿐 아니라 의미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의 코로나 블루는 더욱 심각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심리적 지지 제공자로 가족(64.2%)을 꼽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도, 가족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8명의 코로나 학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제주포럼을 찾았다. 8명 중 7명의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 학생들은 코로나 블루를 보다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가 정신건강, 교육, 정부, 그리고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In this crisis, **the market economy** has definitely been **failing the vulnerable population.***



Kiara TEGBE  
Undergraduate Stu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키아라 텍베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

FOR PEACE & PROSPERITY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Speaker 발표 /

*Our **system of self help** can no longer work. So now, for these new problems, **the government needs to be the new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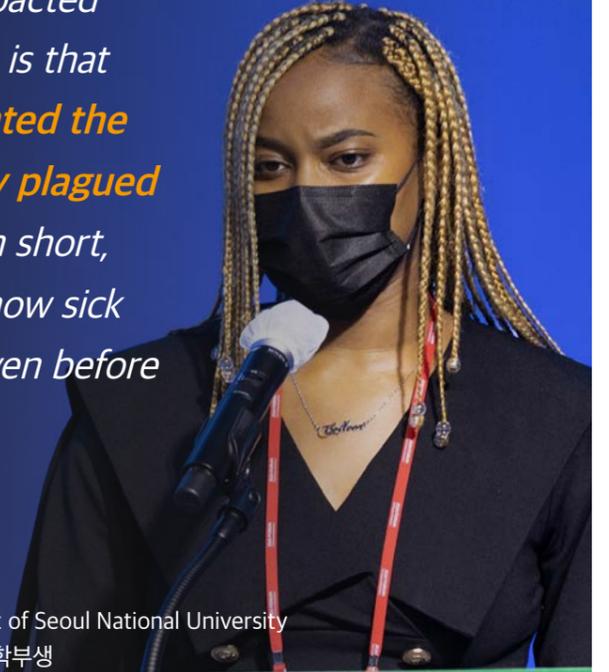


MIN Jun Hong  
Undergraduate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민준홍 서울대학교 학부생

FOR PEACE & PROSPERITY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Speaker 발표 /

*The biggest way in which COVID has impacted social activism is that it has **highlighted the issues already plagued our society.** In short, it showed us how sick society was even before the virus.*



Colleen MUTURI  
Undergraduate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콜린 무투리 서울대학교 학부생

FOR PEACE & PROSPERITY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Speaker 발표 /

***Suffering** caused due to the pandemic **does not go away with the pandemic.** We have to be active. Especially now as the world is beginning to move on*



Naama SCHONEVELD  
Undergraduate Student of Korea University  
나아마 스킨벨트 고려대학교 학부생

FOR PEACE & PROSPERITY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Speaker 발표 /





# [청년세션4] 코로나 학번: 팬데믹의 현재와 미래

## Youth Session 4: Class of COVID19: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Pandemic



김선혁 교수  
고려대학교

Moderator



홍미화 조교수  
국민대학교

### Mental Health & COVID-19



60% of young Adult report symptoms of anxiety



55% of Students do not know where to seek help



Maya Rahma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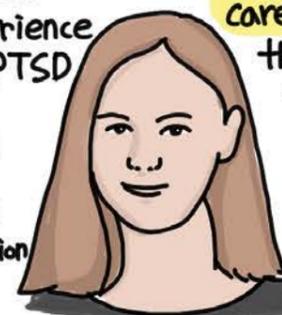
'What should be done'

### The Future of Mental Health

10-15% of population's live will not return to normal  
55M people expected to experience PTSD

The digitization of mental health care will become the future of mental health

0.7% of Global population



Laura M.A. Herwin

### The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Covid Hits: A shift  
Impact: closure of Schools  
Adapting to Online Environments



Impact: Effectiveness & Quality  
Graduation Amid Covid-19



Dominick Wong

### Future of Education Post COVID

- Online education
- Study pressure

New trend: Distance Learning

changing the Curriculum  
↓  
create an impact on the Society as a whole  
Entire Huma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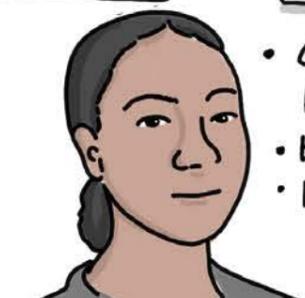


M M Naveen Rajan

### Government present and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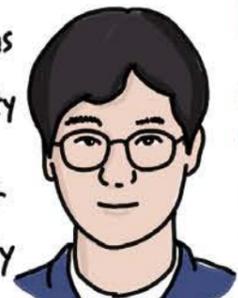
- ① centralization
- Accountability
- Accessibility

- ② Digita Transformation
- Digitized Authoritarian Power ↔ Digitized Efficient Democracy



Kiara Tegbe

- Government can Become Responsive
- Hope - Fairnes
- Responsible
- Institutions for Responsibility
- Monitoring by civil society
- New Normal Government



민준홍

### People are the VIRUS

- #BLACK LIVES MATTER
- Stop killing US
- GENDER INEQUALITY
- #END POLICE BRUTALITY, KENYA
- #END SARS, NIGERIA
- #COLOURED LIVES MATTER, SOUTH AFRICA
- #STOP ASIAN HATE



Collen Kageha

We have to be active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 ① Learn Simply Listen
- ② Care Find personal connection
- ③ immerse Struggles worldwide
- ④ Spread

- <The Future>
- Getting educated
- Listening others
- personal connection



Naama Benamy

DAY 1 / JEJU FORUM 2021

# 우리들이 살아갈 더 나은 주거공간을 향해

## YOUTH SESSION 5 청년세션 5

등지탈출 넘버원: 청년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THU JUNE 24 | 17:10 ~ 18:30 | Grand Ballroom

▶ 한국어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 / 좌장 / **염규현** MBC 문화방송 차장
- / 토론 /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 이상욱** 주식회사 웨어원프로퍼티 대표이사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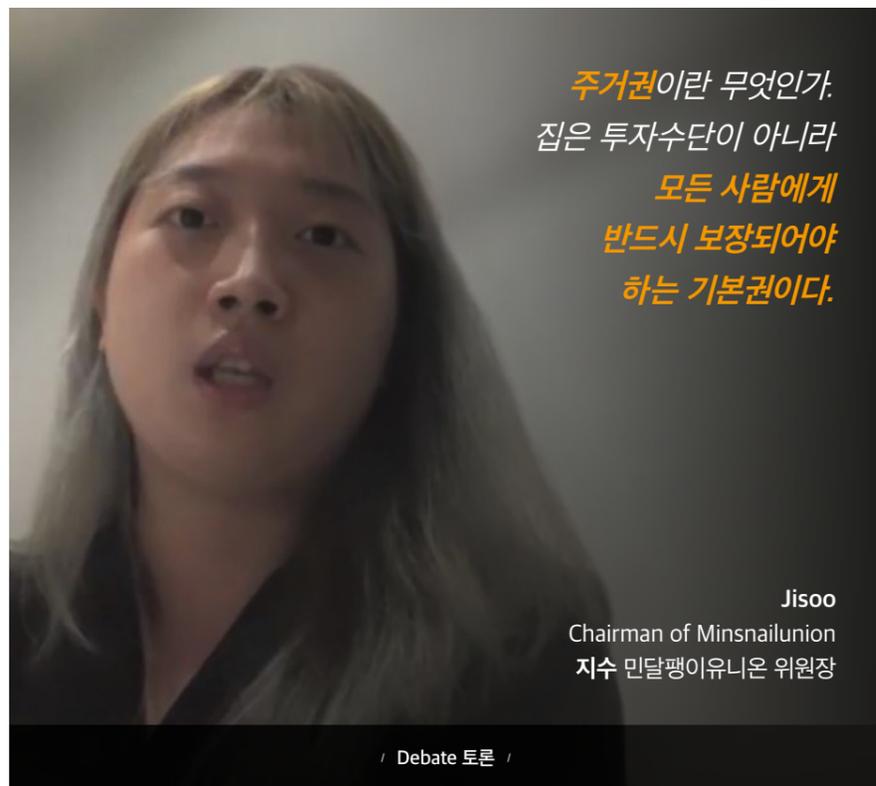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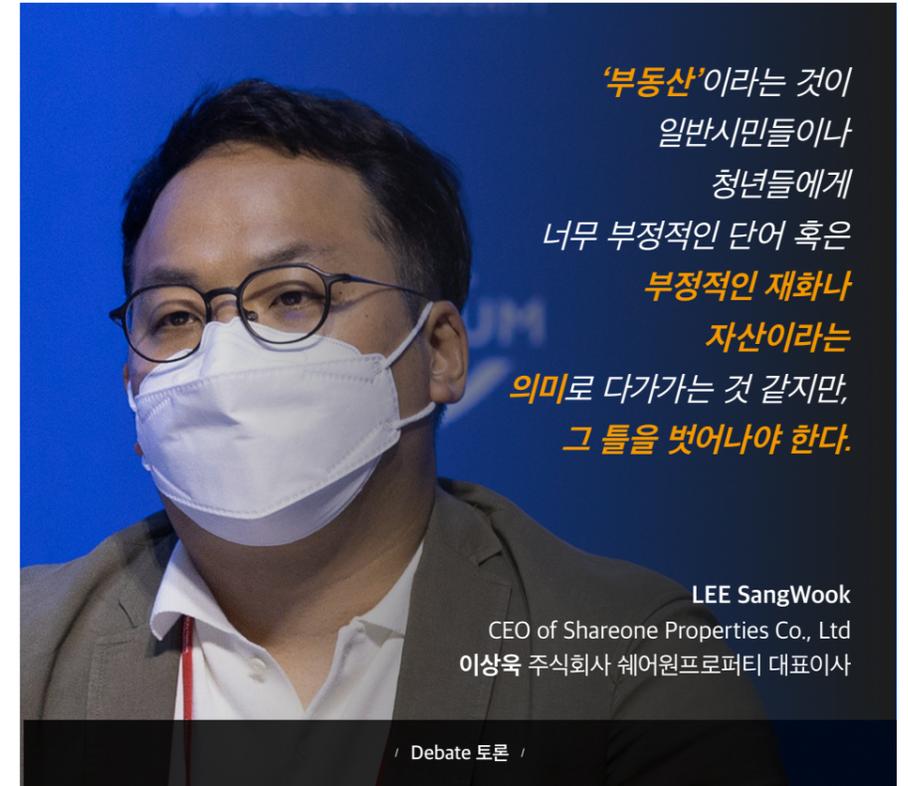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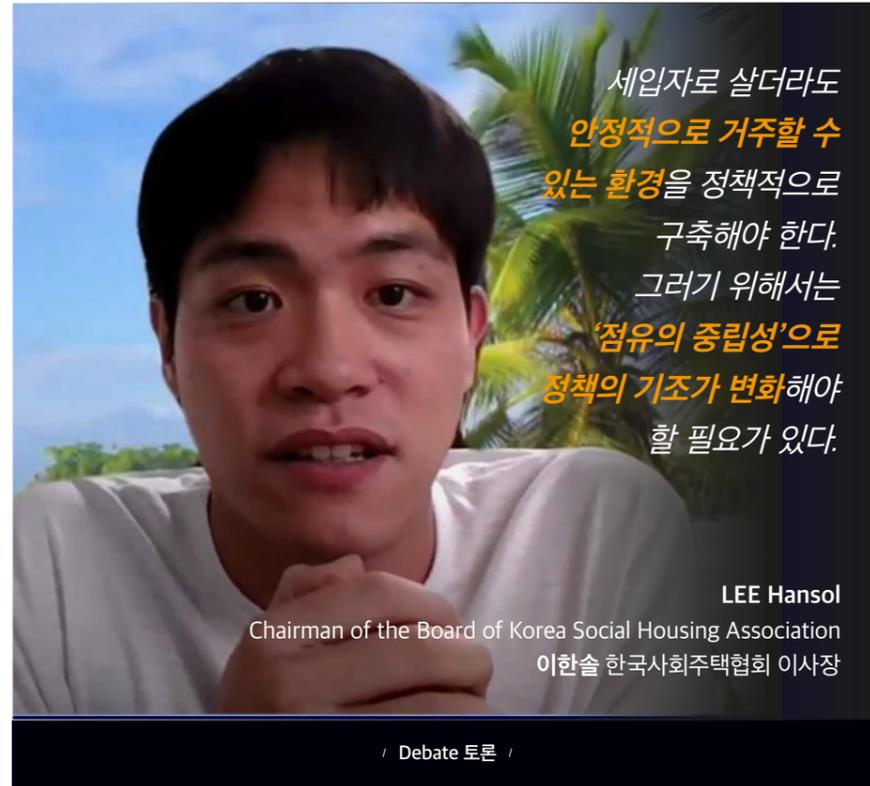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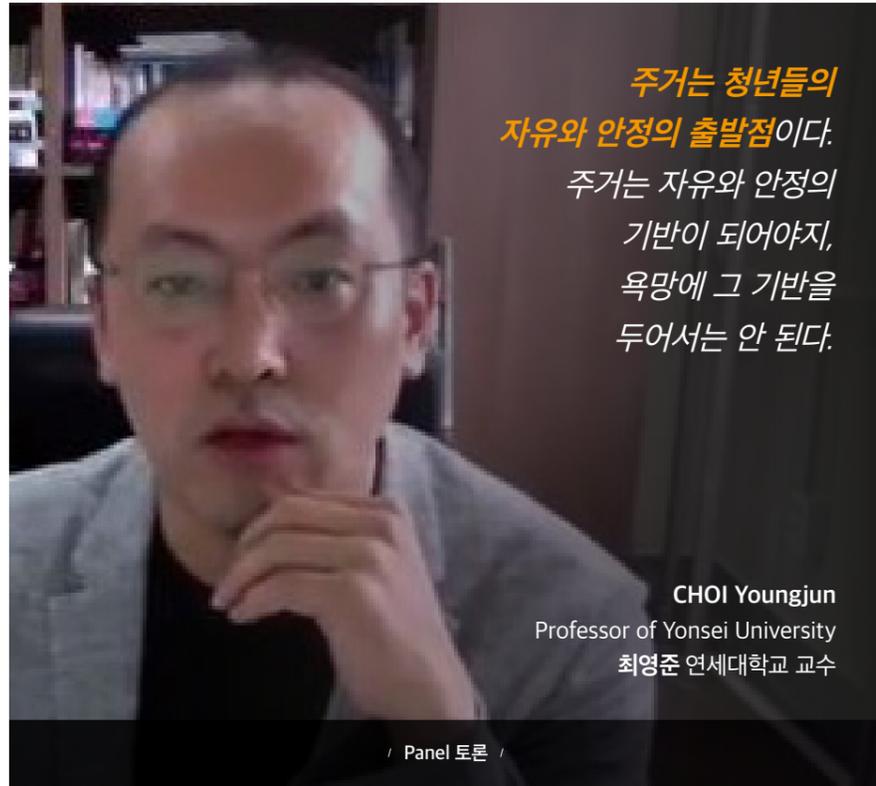
영화 <소공녀> (전고운, 2017) 속 주인공 '미소'는 집이 없다. 내 집 없는 청년이야 한둘이 아니지만 미소는 정말 집 없는 떠돌이 신세다. 한때는 미소에게도 바퀴벌레가 유유히 지나다니고 겨울엔 패딩을 벗을 수 없을지언정 몸 눕힐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었다. 그러나 월세가 올라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 위스키와 담배, 애인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그녀는 집을 포기하고 친구들의 집을 전전한다. 이처럼 철없고 염치도 없어 보이는 미소를 감독은 '완벽한 이상향의 인물'이라 일컫는다. 그도 그럴 것이 3포 세대에서 5포를 거쳐 이제는 N포 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집은 포기해도 취향은 포기할 수 없노라 선언하는 미소는 씩씩한 판타지가 아닐 수 없다.

의식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집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청년들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왜 그들에게 작은 방 한 칸조차 쉬이 허락하지 않는 곳인지. 취향과 존엄,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집마련'이라는 꿈 앞에서는 왜 이렇게 번번이 무력해지는 것인지. 대학생 청년 5명으로 구성된 제16회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청년이 주' 팀은 이러한 질문을 안고 <등지탈출 넘버원: 청년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세션을 기획하였다. '청년이 주' 팀의 '주'는 주인 주(主), 살 주(住), 달릴 주(走)라는 세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내포한 것으로, "청년인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우리들이 살아갈 더 나은 주거 공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자."라는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영화 바깥세상에서는 '영끌' 담론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다는 뜻으로, '내집마련'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청년 세대의 자조 섞인 말이다.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집 한 채만큼의 값어치에 가당기에는 역부족인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7.3%로 특성 가구 중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2017년 이래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세션에는 MBC 문화방송 염규현 기자,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웨어원프로퍼티 이상욱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참여하여 청년 주거 현실을 보다 깊이 살펴보고, 청년주거정책, 사회주택, 코리빙 등 다양한 대안들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논의한다.

물론 우리 사회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대한민국 도처에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전은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소득도 불안해 집값 마련이 쉽지 않다. 게다가 높은 주택가격 탓에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는 실태는 청년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전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 [청년세션5] 등지탈출 넘버원: 청년주거의 실태와 미래 방향성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 존엄을 누릴수 있는... 집
-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 예측가능한 계획은 세울수 있는...
- 내집마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를 원함
- 주거는 투자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 세입자도 권리가 있다**

베를린: 세입자 권리 100년 전

강남 교사원: 삶의 안정성 = 주거공간의 의미

주거의 질 보장 X **부동산** 부정적 자산으로 인식

**수이 하우스 = 주거의 질 향상**

**이상욱 대표**  
어반하이브리드

강남에서 청년의 중심지역 시작 → 적정가격으로 공급

**청년 일상과 주거 보장을 위한 부동산 개발**

절대적 비용 절감의 관점 → 교사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방법: 개인공간 + 공유공간

공급자 측면 → 공간을 작게 나눔 → 수익 증대

공공자본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

수이 하우스

자산화 기반 중소부동산 벤류 Add

• 서개발 필치 → 공유공간으로 개발

**MBC 영규현 기자**

「많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쏠림」

일자리 분산도 중요

주택임대차법 개정

청년은 항상 청년은 아니다

자유로운 주거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 부동산 중심

↳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했지?

모순·역설 → 노동의 가치 초라해짐

2018 설문 : 차별받고 있다.

2020 조사 24세-29세 무기력·우울감 : 83%

\* 제한된 좋은 일자리 → 경쟁심화

• 20대 후반 →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

창법

스웨덴

임금격차 ↓

권위적 ↓

자유·다양·안정

청년정책은?

「급진적」 정책 필요

청년이 정책의 핵심으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다양한 정책

욕망의 바람을 배는 제도가 필요

임대주택

주거비 완화

내집 마련

주거정책으로 국한시키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협오 자산가치 하락 우려

기회의 박탈 현장의 변화: 1인가구 증가

정유의 중립성

• 주택공급은 늘지만 세입자는 줄지 X

• 세입자로 사는 청년의 80% 부담느낌

• 영끌이 가능한 청년: 30% → 세입자로 산더라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하라

이 한도 한국사회주택협회

**소유하지 않아도 내집으로!**